

2 종합

1면에서 계속 →

코로나 이전 문과대 전체가 참여 하던 축제 청년제, 행사 문대인의 밤이 사라졌다.

문과대 단위의 농촌체험활동이나 MT 역시 최근 3년간 운영하지 못했다.

RE:VIBE 선본은 ▲청년제 개편 ▲농활 부활 ▲학과별 건의함 설치 ▲세미나실 예약 방식 개선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양 당선인은 “코로나 전후로 문과대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며 “그대로 부활시키기보다는 시대에 맞춰 변형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대, 호관대, 정경대, 경영대 같은 곳들은 축제를 크게 열고 있다”며 “학생들이 잘 모르는 문과대 축제인 ‘청년제’를 회의를 통해 적절하게 부활시킬 것”이라 말했다.

단과대 학생회 총선거 당선자 명단		
〈서울캠〉		
선거구	선본명	당선자
간호과학대학	Fine	[정]박진서(간호학 2023), [부]인세형(간호학 2022)
경영대학	WAYVE	[정]강민욱(경영학 2020), [부]유지민(경영학 2022)
무용학부	해움	[정]강진(무용학 2023), [부]송민경(무용학 2023)
문과대학	RE:VIBE	[정]양우혁(응용영어통번역학 2021), [부]김세린(국어국문학 2022)
생활과학대학	사계	[정]나영흠(주거환경학 2023), [부]이정하(의상학 2023)
약학대학	약동	[정]정예원(약학 2022), [부]김나현(한약학 2023)
음악대학	이름	[정]소재희(작곡 2021), [부]김소현(기악 2022)
이과대학	EVEN	[정]조정원(지리학 2023), [부]안진령(물리학 2024)
자율전공학부	연	[정]손상혁(자율전공학 2024), [부]이세희(자율전공학 2024)
정경대학	대나은	[정]신하균(사회학 2023), [부]엄해솔(무역학 2023)
치과대학	한결	[정]김기연(치의학 2022), [부]박종현(치의학 2022)
한의과대학	희들	[정]김한결(한의학 2022), [부]홍원준(한의학 2022)
호텔관광대학	stage	[정]김나현(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3), [부]인시현(hospitality경영학 2023)
〈국제캠〉		
선거구	선본명	당선자
공과대학	EVER	[정]장호재(건축학 2018), [부]정윤재(기계공학 2020)
외국어대학	here	[정]윤동현(중국어학 2022), [부]이수연(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3)
체육대학	Rally	[정]박성민(체육학 2023), [부]이한나(스포츠지도학 2022)
생명과학대학	초록	[정]김영현(식품생명공학 2020), [부]이영현(한방생명공학 2021)
예술디자인대학	D&	[정]신건(도예학 2021), [부]오재민(환경조경디자인학 2022)
전자정보대학	Sketch	[정]이유찬(전자공학 2023)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새벽	[정]박현빈(컴퓨터공학 2023), [부]김지현(컴퓨터공학 2023)
응용과학대학	ONU	[정]이우경(응용수학 2020), [부]김지은(응용화학 2023)
국제대학	Venture	[정]조성운(국제학 2021), [부]정하림(국제학 2021)

외대 이의제기 공방
6일 만에 당선 확정 공고

외대 학생회 선거는 지난달 28일 개표 이후 지난 5일 확정 공고까지 6일이 걸렸다. ‘hear’ 선본이 당선됐지만, 상대 선본 ‘그름’ 측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그름 선본은 외대 선관위 집행부원 소속 A씨가 선거 운동에 개입하고, hear 선본의 선거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제출했다. 이의제기에 따르면 A씨가 hear 선본의 당직표를 대신 만들었으며, 공청회 질문에 대해 미리 언질을 줬다는 것이다. 증빙자료로 hear 선본 부후보자와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선관위 측에 제출했다. 이에 hear 선본은 소명서로 그름 선본에 반박했다. 주요 주장은

‘개표 종료 후에는 개표에 관한 이의 제기만 할 수 있다는 점’, ‘그름 측의 주장이 왜곡되고 모순된 내용이라는 점’, ‘증빙자료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으로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에 11월 30일과 12월 2일에 제 5, 6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의제기 범위와 A씨 선거 개입 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선거시행세칙 제56조 2항에 따르면 ‘이의제기 후 시행되는 중선거위 회의 의결은 중선거위의 2/3가 참석해야 하며, 전원 찬성 시 의결이 가능하다.

회의 결과, 당선을 무효로 산정해야 한다는 안건에 국제대, 전자정보대, 중선거위장이 반대해 해당 안건은 부결됐고 hear 선본의 당선이 확정됐다.

국제캠 총학 당선자 코어 선본, “언제나 학생 편에 서는 총학”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2025학년도 국제캠퍼스 총학 생회(총학) 선거에서 ‘코어’ 선거운동본부(선본) 박병준(국제학 2017) 정후보와 김윤조(시각디자인학 2021) 부후보가 당선됐다. 박 정 후보 당선자와 김 부후보 당선자의 당선 소감과 계획을 들어봤다.

Q1. 당선 소감은?

우선 선택해 주신 유권자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24년도 총학 러닝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당선됐다고 생각한다.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뽑아주신 만큼 실천력으로 꼭 보답하고 싶다.

Q2. 1%대 차이 당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겸손하게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사실 같은 부분이다. 관련해서 링크 선본도 공약을 잘 준비했다. 누가 당선이 되든 미묘한 차이가 나겠다고 생각해, 결과가 나오고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우리도 각 단과대와 잘 소통해 환경 개선을 도울 것이다.

Q3. 유권자가 코어의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하고 선택했다고 생각하나?

슬로건이 ‘본질에 다가가다, 핵심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된 ‘코어’ 박 정후보(오른쪽)와 김 부후보(왼쪽)의 당선 소감과 계획을 들어봤다. (사진=하시언 기자)

으로 나아가다’인데, 선거 준비를 하면서 총학과 선거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다. 또한 공약을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진실성 있게 다가간 것 같다. 학교가 제일 필요로 하는 의제를 고치겠다는 의지와 추진력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선거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 공청회와 정책 자료집으로 코어가 어떤 비전과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줬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만나려고 노력했다. 특히 강의실을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할 때, 유권자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며 진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Q4. 가장 먼저 이행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무전공이다. 무전공 준비단을 바

로 꾸려야 한다. 무전공 학생과 학교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비교과 측면에서 학생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인기 학과 쏠림현상으로 인한 기존 학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부총장님과 만나 인기 학과의 교원 확충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Q5. 당장 내년 1학기가 되면 재학생들은 어떤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캠퍼스 주변 버스 이용 면에서 편의를 느끼도록 노력하겠다. 영통역과 망포역으로 가는 버스를 도의원과 소통하며 증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버스 업체에서도 수익성이 확인되면 업체 차원에서 버스 도입이 가능하다. 학교가 요청하는 것

도 방법인데, 과거 1112번 증차도 학교 요구로 증차가 된 전례다. 총무관리처와 소통하며 시내버스 증차 당위성을 입증해 증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6. 학문 단위 재조정 공약, 공약의 핵심은 무엇이고, 첫 단계는 무엇인가?

캠퍼스 특성화로 진정한 이원화를 이루는 것이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학문 단위 재조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외대를 서울캠으로 옮기는 것에 공감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은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총장님 설득이다. 안건이 이사회로 올라가려면 총장, 부총장님 발언과 설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Q8.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캠퍼스 내 시설 확충 관련 학교, 도의회 어떤 논의 있었는가?

총무관리처와 안전 구축을 논의했다. 또한 경찰, 전문가와 논의할 예정이며 신호등 설치 등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속도 제한 표지판 역시 설치할 것이다.

Q9. ‘아델란테’는 내년에도 이어지나? 내년 축제 달라지는 점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아델란테’로 진행한다. 무대와 푸드트럭 배치, 전기 설치 등은 경찰과의 논의 및 검증으로 안정성이 입증됐기에 그대로 진행한다. 유학생 참여를 높이는 등 세부 콘텐츠는 바뀔 수 있다. 아델란테 상표권 등록 역시 추진할 예정이다. 상표권이 없으면 외부 업체에서 아델란테 브랜드를 사용해 상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타학교의 경우 축제 브랜딩 상표권 등록을 통해 관련 상품을 판매하며 수익을 얻고, 축제 비용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Q9. 학생-학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으로서 직위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무조건 학생 편이다. 학교와 자주 부딪히더라도 학생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의 편에 서겠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총학생회의 리더로서 부원들이 애교심과 소속감으로 업무에 진심을 쏟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겠다.